생기와 사기 사이의 호흡법

(에스겔 37:1~28)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기와 사기 사이의 호흡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기와 사기 사이의 호흡법'

생기(生氣)는 생명의 기운이며, 사기(死氣)는 죽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은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실존하며, 이방인들은 사기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사기를 호흡하는 자들의 죽은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호흡을 가리키는 것이고 본문의 생기는 '루아크'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문의 뜻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숨을 쉬게 하다는 의미에서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탁구 선수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께서 말씀하시길 탁구의 마지막은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강사의 말이 수영의 마지막은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프를 치는 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운동은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태권도나 구기 종목 등도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십자가 생활화도 호흡이 무척 중요합니다. 호흡이 안 되면 십자가 생활화가 힘이 듭니다. 요새 말씀에 달리는 댓글을 읽어보거나 강릉에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설교에서 소개되는 십자가 생활화의 내용들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호흡의 문제가 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호흡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호흡법은 수영과 닮았습니다. 물에서 이루어지는 수영의 특성상 호흡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잘되면 손과 발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나름입니다. 수영의 호흡법은 실은 간단합니다.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숨을 내뱉고, 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에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과 맞추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들이마시고 땅을 향해 내뿜는 호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영을 할 때에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숨을 들이마시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하늘을 들이마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늘의 기운을 내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호흡법입니다.
호흡이 지속되어야만 하듯이 십자가 생활화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수영을 할 때에 잠시라도 호흡의 리듬이 깨지면 물을 마시게 되듯이,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삶에서 세상이 마음에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중에도 하늘을 들이마셔서 하늘의 기운을 내뿜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다고 해서 직장의 기운을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호흡이 순간마다 이루어지듯이 십자가 생활화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을 마시게 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된다면 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호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고개를 수면 위로 들고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기운을 들이마시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하늘 기운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늘을 호흡할 시간은 짧아지게 되고 정상적인 호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작 50m 수영을 할 때에도 두세 번만 호흡을 잘못해서 물을 들이키면 먹은 물을 토해내느라 수영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들숨의 순간에 세상을 들이마시면 신앙의 리듬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게 나아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 마음이 들어올 틈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음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러한 선민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에스겔은 선민들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기를 호흡하고 있는 교회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민이고 교인들 중에서도 죽은 마음을 가진 자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는 이미 죽은지가 한참 지나 백골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영적으로 죽어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를 호흡하고 있는 상태와 사기를 호흡하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완전히 사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교회와 교인은 이러한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실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물과 수면 사이에서 움직이기에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선민은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호흡해야만 하는 환경과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를 통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증거를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34장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는데 “인간관계의 마스터키 혼밥혼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혼밥혼술은 하나님을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마스터키가 되는 이유는 마음 채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항상 허기를 느낍니다. 오늘 생기와 사기에 기운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허기 또한 굶주린 기운입니다. 육체의 허기는 식사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허기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허기를 가진 채로 사람을 만나면 모든 대상이 사냥감이 됩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빈민가에 가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봉사를 통해 생겨나는 보람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밥흔술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마음의 허기를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내가 가진 하늘의 기운을 내뿜는 기회가 됩니다. 앞서 증거를 통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인간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기를 호흡하는 것이 아닌 사기를 호흡하는 상태입니다. 사기를 호흡한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장에서는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4장에서 내 마음의 허기로 상대를 잡아먹으려 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35장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를 에돔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생기를 호흡하는 자들이라면 대적들이 나에 대해 갖는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 현장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생기를 호흡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무엇이든 해서 대적들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사기를 호흡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마음이 생기를 호흡하는지 사기를 호흡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36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생기로 호흡하는 자들은 삶에서 하나님 이름이 가진 존재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의 존재의 무게가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의 무게를 압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커다란 무게감을 가진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실감하였고 그 결과 골리앗을 티끌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삶의 갖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써의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티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문제를 부여잡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가 티끌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를 호흡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문제들의 이름에 마음이 압도당하고 있다면 사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 생기와 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 메시아 출현이 다윗으로 비유되어 예언됩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 될 길을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길을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하늘을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늘을 호흡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통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생기의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일반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 같이, 사기로 호흡하는 동안 괴로워서 아무 신이나 찾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생기로 호흡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무게감이 실려 있어야합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만드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 15절부터는 두 막대기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두 막대기는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를 상징하는데 두 막대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생기를 흡입하여 삶에서 내뿜는 호흡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개신교는 루터파와 캘빈파 쯔빙글리파로 나뉘고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근본적 이유는 생기에 의한 호흡이 멈추고 사기로 호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기로 호흡했다면 오늘 말씀이 증거 하는 대로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찬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도 화체설, 공존설, 기념설, 상징설 등으로 나누어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고민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호흡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기를 호흡하다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교파를 새로 만들고 갈라서면서까지 고집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목사안수까지 받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교라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생기를 호흡하지 못하고 사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사기를 호흡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허기를 땅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나 교회에서조차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명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단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장로교 안에서 이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교주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을 호흡하여 살아가는 교인이 이단입니다. 교인이 들이마셔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늘의 기운입니다. 땅을 호흡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십자가 생활화도 해보려고 하니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빨아들이고자 할 것이고 생기를 호흡하는 리듬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세상 문제를 들여놓게 되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쁨과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를 마음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돈을 떼었다면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으면 지출의 구멍이 넓어지고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쉬지 말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십자가 생활화의 질이 결정됩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을 듣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젖혀둔 채 상사의 꾸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기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야단치는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야단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까지 참여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무조건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할 때에 동시에 내 마음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

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 어떤 원수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갚아서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사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존재의 무게를 실감하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부르는 것도 사기를 호흡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기를 호흡했으니 마음이 마른 뼈처럼 죽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괴로움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원망이 증거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출연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 이어서 성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성소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비추어보며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에 머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에는 빨아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절대 세상을 빨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막을 살펴보면 마음에 세상을 빨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세상 자체를 들여놓지 않는 부활의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은 주님의 승천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빨아들이는 기운은 죽음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의 설교는 마치 인공호흡과도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일찍 자고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여 아침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인공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을 해서 폐 속에 들어간 물을 빼내듯이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 찬 세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인공호흡의 과정을 지속하다보면 어느덧 마음에서 세상이 빠져나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십자가 붙잡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서 나의 삶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

었음을 고백하며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여놓을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갑니다. 나도 죽고 문제도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대적에게는 속수무책이 상책입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 세상을 틀어막고 하늘로만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과 계획을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수영과도 같습니다. 고개를 들어 숨을 들이쉬고 물속에서 숨을 내뱉습니다. 십자가로 하늘 기운을 들이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늘 기운을 내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배우자가 아우성을 치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는 매몰찬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닿게 만드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생기를 호흡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처럼 가족을 구원시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땅으로 채움으로써 사기를 호흡한다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먼저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가족들에게 하늘의 기운을 내뿜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가족과 일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는 사기를 호흡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틈새 없이 짊어지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온전한 호흡법이 익숙하게 해주셔서 평강과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는 축복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